최 진 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IUSSP 부산총회 국가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세계인구총회 개최의 의의

제 27차 IUSSP(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세계인구총회(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가 금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된다. 세계인구총회는 IUSSP가 매 4년 마다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서 인구와 관련된 출산, 사망, 인구이동, 보건, 의료, 건강,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세계최대의 인구관련 회의이다.

부산 세계인구총회에는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1,500여명의 외국인과 500여명의 한국인 등 총 2,000여명의 학자와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여하여 270개의 구두발표 세션과 포스터 세션을 통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인구총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첫째, 인구문제는 아직도 인류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세계 인구는 지난 2011년 11월을 기해 70억을 돌파하였다. 1987년 이래 세계 인구는 매 12년 마다 10억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세계인구가 증가하면 2050년에는 92억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1년 현재 70억의 세계 인구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보면 전체 인구의 17.8%는 선진국에 거주하며 나머지 82.2%는 개도국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도국 거주인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 2050년에는 그 비율이 85.9%로 되며 2100년에는 86.8%로 증가하게 된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된 인구문제를 안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로 말미암아 빈곤과 질병, 기아 등 인구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령화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직도 전 세계의 10억 인구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최빈층에 속해 있으며 5초에 1명씩, 하루에 1만 8천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둘째, 한국은 불과 40여 년 동안에 세계가 당면한 이 두 가지의 인구문제를 동시에 경험한 특이한 나라로서 두 가지 인구문제의 해법을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1960년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6.0으로 대표적인 고출산국가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의 출산율은 가파르게 감소하여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1로서 대체출산수준 밑으로 떨어졌고,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이 되어 초저출산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실제로 지난 1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조직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단기간 동안에 고 출산 국가에서 저출산 국가로 이행할 수 있었는지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그 비결을 개막식에서 꼭 발표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셋째, 이번 부산 인구총회에서는 인구와 관련해서 모두 21개의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는 현재 UN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주요 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그 진척상황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2000년 9월 UN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성 평등 촉진, 환경보호 등 모두 8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모든 회원국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 세계인구총회에서는 성성과 생식보건, 에이즈 등 질병, 건강, 사망, 수명, 젠더와 인구, 인구와 환경, 인구와 인권, 인구와 개발 등의 큰 주제 하에 많은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제 새천년개발목표의 목표연도인 2015년을 몇 년 앞둔 시점에서 각 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요약되는 현재 한국의 인구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장래 발전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어쩌면 유럽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저출산의 덫'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출산율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리는 세계인구총회는 한국 인구문제의 중대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대회 날짜가 임박해 오면 세계인구총회 홍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인구문제도 부각되어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세계인구총회에는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1천 5백여 명의 외국 학자와 전문가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끌어 올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한국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이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참석자에게 알리기 위해 조직위원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특별 세션을 구상하여 그 중 한 세션에서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과 인구변천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한국이 어떻게 해서 단기간 동안에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또 고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은 현재 세계의 IT 강국이기 때문에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쓰일 수 있는지도 논의하여 IT 선진국으로의 면모도 과시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이번 세계인구총회에서는 특별히 한 세션을 할애하여 북한의 인구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북한의 인구문제는 거의 외부세계에 알려진 것이 없고 북한의 인구자료도 국외로 유출되지 않아 북한의 인구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나 다름없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조직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북한의 인구학자를 직접 초청하여 북한의 인구 현황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최근 남북 간의 관계로 보아 어려워졌고 대신 북한의 인구를 연구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북한의 인구 실상을 외국 참가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그 동안 일단의 한국 인구학자들이 이 세계인구총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노력했고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도 이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다. 이제 부산 세계인구총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 기간 중에 발표되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 결과물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서 발표될 전 세계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토론 내용, 그리고 이 세계인구총회 개최를 적극 홍보하여 한국의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인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민 모두가 자각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보건복지